

김제시, 이동형 '거리미술관' 운영

내달 20일까지 김산동행정복지센터 일원서 주혜령 작가 'Under the Sea' 전시회 개최

김제시는 시민들과 예술로 소통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활용한 이동형 '거리미술관'을 다음달 20일까지 김산동행정복지센터 일원(김산동 1068-4번지)에서 운영한다.

이 미술관 사업은 김제시가 소속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한 '2021년 시책발굴 경진대회'에 선정된 사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거치며 문화 예술과 단절되었던 시민들과 예술가의 삶을 연결해주기 위한 대안으로 기획되었다.

거리미술관은 화물컨테이너를 소원도로 만들기 위해 대형 유리를 설치하였으며,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라는 특징을 살려 김제시 곳곳을 이동하며 시민들에게 예술 작품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거리미술관 개관 기념 초대전으로 조각 설치 작업을 선보이는 주혜령 작가의 'Under the Sea' 전시회가 진행된다. 주혜령 작가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 관찰한 소소한 장면들에 동화적인 색채를 입혀내는 작가이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물고기>는 작가가 수많은 물고기를 이끌고 깊은 바다를 탐험하는 이야기이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꿈과 현실, 일상과 비일상 경계에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순간을 사는 시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낸다.



김제시는 시민들과 예술로 소통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활용한 이동형 '거리미술관'을 다음달 20일까지 김산동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운영한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은 "문화시설이 열악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예술을 보다 쉽게,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

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예술이 가진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5월 작가와 함께 걷는 문학 산책'

전북작가회의, 27일 최명희문학관서 진행

5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대한민국 문단을 대표하는 전북작가회의(회장 김자연)가 오는 27일 오후 6시 30분 최명희문학관에서 '5월 작가와 함께 걷는 문학 산책'을 개최한다.

참여 작가는 복효근 시인, 유강희 시인, 서철원 소설가 등이며, 이들 세 작가는 신간 작품집으로 전북작가회의 회원, 시민들을 만난다.

이날 선보이는 작품은 복효근 작가의 첫 동시집 『나도 커서 어른이 되면』(미디어 샘)과 유강희 작가의 동시집 『달팽이가 느린 이유』(창비), 서철원 작가의 소설 『해월』(여주세종문화재단)이다. 사회는 신재순 시인이 맡아 진행한다.

『나도 커서 어른이 되면』은 어린 화자의 때 묻지 않은 시선을 통해 가족과 친구, 일상, 자연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으며, 『달팽이가 느린 이유』는 짧고 기발한 세 줄 동시 『순바닥 동시』의 풍성함과 순바닥 동시의 상상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해



복효근 작가

유강희 작가

서철원 작가

월』은 동학 제2대 교주 최시형의 일대기에 담긴 동학인의 저항정신과 부패한 권력에 들끓었던 민초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김자연 회장은 "올해 5월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어린이에게 사립으로서 권리를 인정하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자'는 어린이날 제정 정신을 5월 문학 산책을 통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작가회의의 5월 문학 산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75-2266)로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에서 맛보는 한식이야기' 특강 성료

한국전통문화전당, 명사들과 4개 주제로 펼쳐져

'전주한식'을 인문학 관점에서 바라본 '전주에서 맛보는 한식이야기' 특강이 성황리 종료됐다.

한국전통문화전당(임장 김선태)은 17~20일까지 4일 간 명사 초청 '전주에서 맛보는 한식이야기'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사전 접수에만 220여 명의 시민들이 몰려, 음식 관련 명사들과 한식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가 오가는 등 참여자들의 호응이 컸다.

이번 특강은 점점 잊혀져가는 한식문화를 누구나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4개의 주제로 펼쳐졌다.



강좌를 진행해 온 한식문화진흥팀 백지혜 연구원은 "참여자들과 강연자의 열띤 호응을 보며 일상 속 식문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평했다.

나흘간의 특강을 모두 수강한 한 참가자는 "명사들의 강좌를 전주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 좋았다"며, 지역 내 한식문화 강좌 개설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선태 원장은 "이번 특강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한식 인문학 강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후후 더 좋은 주제로 한식 인문학 명사 특강을 기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강에는 한식 인문학에 관심 있는 시민으로 20대 대학생부터 업소 대표, 전주 음식 명인, 음식전공 교수, 문화부 기자까지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가 참여했다.

/김윤상 기자·장은성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유리공예 거울 만들기 체험하러 오세요"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6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문화행사로 특별전 '이집트 - 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의 유물 '미의 여신 하토르가 장식된 거울'을 연계해 유리공예 '거울 만들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와 4시 국립전주박물관 열린공간 온에서 두 차례 운영하는 이번 행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각 20명씩 총 40명을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5월 27일~6월 1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jonju.museum.go.kr)에서 예약 가능하다.

홍진근 국립전주박물관장은 "이번 행사는 이집트 특별전의 유물과 연계한 체험행사로, 고대 유물과 현대 공예의 어려움을 통해 보다 다채롭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북대 자연사박물관, '식물세밀화 교실' 참가자 모집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관장 황성수)은 6월 7일부터 지역민을 대상으로 식물세밀화교실 프로그램을 운영기로 하고,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식물세밀화는 식물이 가진 과학적 특징을 섬세하게 묘사함과 동시에 그리는 이의 예술적 감각이 가미된 예술작품이다.

이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매회 신청자가 조기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식물에 관찰하며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작품에 몰입하면서 일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는 시간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장은성기자

올해는 식물의 한살이를 주제로 강좌가 진행된다. 인간의 생애주기가 있듯이 식물도 삶의 수명주기가 있다. 종자에서 시작돼 발아하고, 광합성을 통해 성장 및 번식에 이르는 식물의 전 주기를 관찰하며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좌는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무료로 운영된다. 수강 신청은 23일부터 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https://nhm.jnu.ac.kr>) 참여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또는 이메일(nhm@jnu.ac.kr)로 접수하면 된다.

전주문화재단, '우리동네 생활문화 매개 프로그램' 운영단체 공모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오는 31일까지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동네 생활문화 매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생활문화 매개 프로그램'은 생활문화공간을 거점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해 일상 속에서 시민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중심의 자생적·주체적 문화 활동을 확산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자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주시 소재 책방, 플리마켓, 공방 등 동네 생활문화공간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공모한다.

재단은 심사를 통해 선정된 단체에게 프로그램 운영비(최대 300만원)를 지원하며,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공간의 특색에 맞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장은성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